

“운전면허 쉬을 때 따자”...문의 빗발

경찰, 하반기 T자코스 부활 등 난이도 상향조정 방침 학원비도 4~9만원 ↑...학원가 상당전화 20% 늘어

올해 대학교 입학에 앞둔 김모(여·20·남구 방림동)씨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자동차전문학원을 알아보려고 있다.

이달 초 광주시 북구 오치동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그는 여름방학기간에 맞춰 실기(장내)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볼 생각이었지만 계획을 앞당겼다.

김씨는 “하반기에 시험이 어려워지고, 수강료도 오른다고 하니 일찍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경찰청 발표가 나오자 자동차전문학원 등에는 운전면허 시험 일정과 수강료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

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학과 공부로 운전면허증 취득을 미뤘던 대학생이 방학기간에 맞춰 면허시험을 서두르고, 전역 이후 따려고 마음먹었던 면허를 입대 전 취득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광주지역 자동차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이 나온 이후 면허시험 일정과 수강료를 문의하는 전화가 평소보다 10~20%가량 늘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7일 운전면허 장내시험 평가항목에 과거 최대 난코스인 불린 ‘경사로’와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T자코스’, 신호 교차로, 좌·우회전, 전진(가속) 등 5개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내기능시험 주행 거리가 기존 50m에서 300m로, 장내기능 교육 시간도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남구 OK자동차운전전문학원 박기복 학감(부원장)은 “재작년(2014년) 겨울에도 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평년보다 10~20% 수강생이 늘었는데, 최근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강생이 늘고,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접수를 해놓고 전전히 시험을 보려던 사람들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북구 광주중앙자동차전문학원 선성근 학감은 “크게 눈에 띄는 수준으로 수강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문의 자체는 평소보다 15~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매킨지에서 발표된 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 방학기간 때문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나 되어야 개정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올 여름방학 시즌에는 수강료가 오르기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내기능시험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광주지역 자동차전문학원의 수강료도 10~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지역 자동차전문학원 수강료는 면허증 발급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36만~42만원 선이다.

한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광주지역 면허학원의 수강료는 전남 등 타지역에 비해 20~30%가량 저렴한 상황으로, 학원마다 제도 변경 전·후를 기점으로 1~2차에 걸쳐 수강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원마다 4만~9만원선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설 택배왔습니다”...강도 위장범죄 조심

경찰청 예방활동 강화...배송시간·연락처 확인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 지난달 1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A(여·74)씨의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대문으로 다가선 A씨는 “택배 왔습니다”란 소리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선 남성은 택배 기사가 아니라 모자와 마스크를 쓴 강도범 조모(63)씨였다. 다행히 강도범 조씨가 강력범죄 전과가 없고 범죄 의지 또한 약해 소리지르며 저항하는 A씨를 남겨두고 출렁거리면서 큰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가장한 강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예방법을 미리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 예방법은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길 것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할 것 등이다.

경찰은 또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도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시켰다.

사기단이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 링크를 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

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 유도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전화를 바로 끊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것 ▲사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할 것 등을 권했다.

명절 때는 택배 사칭뿐 아니라 대출 권유 전화도 자주 걸려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분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기사라고 외치더라도 무작정 현관문을 열어주기보다 물건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는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주는 게 안전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북구 누문동 가구점 화재 31일 오전 10시39분께 광주시 북구 누문동 양동시장 북개성가 건너편 3층 가구점 건물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불로 가구점 건물 등 주변 8층 건물 일부가 불에 타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근 모델 투숙객 등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8:00 | 월출 00:39 월몰 11:57

체감온도 낮이요
밤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오는 곳도 있었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3/1	보성	맑음	-4/2
목포	구름많음	-3/0	순천	맑음	-2/4
여수	맑음	-1/4	영광	구름많음	-4/1
나주	구름많음	-4/2	진도	구름많음	-1/1
완도	구름많음	-1/2	진주	구름많음	-5/1
구례	맑음	-5/3	군산	구름많음	-5/0
강진	구름많음	-2/1	남원	구름많음	-7/1
해남	구름많음	-3/1	축산도	구름많음	0/1
장성	구름많음	-4/0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면바다	북서~북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09	00:00	19:16	12:19
여수	01:50	07:55	14:02	20:19

◇주간 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	☀	☀	☀	☀	☀	☀
-4/2	-5/5	-3/7	-2/5	-3/3	-3/4	-2/5

이번주 ‘쌀쌀’...2월 한달은 ‘포근’

광주·전남지역에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서쪽에서 찬 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영하 5~0도, 최고 5~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까지 계속되다 설 명절을 전후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월 1일경 예년보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31일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북 김제서 민간헬기 추락 조종사 숨져

김제에서 전북지역 산불감시 등에 투입 예정이던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국토교통부 등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31일 전북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58분께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 관광단지 인근에서 조종사 김모(61)씨가 운전하던 세진항공 소속 헬기 1대가 추락, 김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 헬기는 1991년 독일에서 생산된 'BO 105(2.6)' 기종으로 1일부터 전북지역 산불감시 및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 헬기는 사고 당일 오후 2시15분께 출발 예정이던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집중된 모악산 주차장에서 불과 200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종사 김씨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산으로 기수를 돌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륙 전 한국항공공사 청주지사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에 2명이 탑승하기로 기재된 것과 달리 조종사 1명만 탑승한 이유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6 정읍 마을만들기 시민 창안대회

창안대회란?
우리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생각들을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컨설팅으로 이루어진 단계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활기 차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접수기간: 2016. 1.15.(금) ~ 2.16.(화) 오후 6시까지

참여대상: 마을공동체 (마을 단위) 창업공동체 (3인 이상)

신청서 교부: 정읍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정읍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문의: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063-531-1373~7, 정읍시 지역공동체육성과 063-539-6822~3

주최: 정읍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